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이유경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이유경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고소설에 수용된 전쟁 소재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쟁 소재가 일반화되면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 여성영웅 형상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을 치른 후인 조선후기에 이르면 전쟁을 주요 소재로 하는 군담소설(영웅소설)들이 많이 등장한다. 실제 전투에 참여하여 군공을 세우고 입신양명하는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여성영웅소설들도 이 시기에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고소설, 특히 창작군담소설의 경우에 전쟁 소재는 허구성이 강하며 점차 관습화되고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다양한 계기로 작용한다.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이러한 전쟁 소재가 여성주인공이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와 수단으로 쓰이며, 주인공이 추구하는 가치나 작품의 지향점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 형상은 전란 후의 변화된 사회상과 인식을 반영하여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설 속의 여성 형상들이 대체로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영웅적 여성 형상은 좀더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데올로기 내에서의 여성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여성영웅 형상은 영웅적인 삶을 사는 여성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의 힘과 능력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여성 인물의 형상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여성영웅 형상은 여성들 스스로의 자아 의식이나 현실비판 및 인생에서의 지향점을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식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현실과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여성영웅 형상은 근대 이전에 이루어진 여성성에 대한 인식의 또 다른 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 고소설, 전쟁 소재, 여성영웅소설, 여성영웅 형상, 여성의 힘과 능력에 대한 인식, 여성의 현실과 이상의 반영, 여성성에 대한 근대 이전의 인식

1. 머리말

전쟁은 인간의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인간이 이룩한 삶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요소로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요소로서 꾸준히 문학적 소재가 되어 왔다. 고소설에도 이러한 전쟁 소재는 매우 다양하게 수용되어 형상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에 걸친 전란을 치른 후에 더욱 일반화되었다. 전쟁을 주된 소재로 하는 고소설 작품군으로는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을 들 수 있는데, 창작군담소설 작품군 중에서 여성영웅 형상이 주로 등장하는 소설군은 여성영웅소설이다.¹⁾

본고에서는 전쟁 소재의 수용으로 활발하게 등장하게 된 여성영웅 형상과 관련하여, 고소설 작품 속에 수용된 전쟁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본 후에, 여성영웅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여성영웅 형상의 양상과

1) 군담소설이라는 용어는 주로 전쟁이 주된 소재가 된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며,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가 두드러진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다. 군담소설이나 영웅소설에 포함되는 대상 작품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품을 특징짓는 것이 전쟁 이야기이나 영웅의 활약이나에 따라서 그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서대석(『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출판부, 1984) 참조.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삶의 양식과 대응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여성영웅의 형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비범한 육체적·정신적 능력과 군사적 용맹성을 통해 그 영웅성을 드러내는 여성영웅 형상은 여성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삶과 운명을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는 주된 문학적 관습 내에서의 여성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소설에는 전쟁 소재의 일반화와 더불어 이러한 여성영웅 형상이 비교적 자주 등장하고 있으므로, 그 양상과 의미를 살피는 것은 고소설의 여성 형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 고소설의 전쟁 소재가 지니는 의미와 기능

전쟁은 문학의 주된 소재 중의 하나로서 고소설에도 다양하게 수용되었다. 특히 입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고 난 조선 후기에는 전쟁을 겪고 난 인식의 변화가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쟁을 기록한 실기문학을 비롯하여 진쟁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군담 소설이 많이 등장하였다.²⁾ 물론 조선 전기의 초기 소설 작품들에도 전쟁 소

2) 입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에 걸친 전란 이후에 조선 사회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란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가치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문학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시되어 현실 생활과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주기론과 실학이 발달하고, 사회적 혼란의 여파로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평민 의식이 성장하게 된 점은 그러한 변화를 대표한다. 특히 조선 후기는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로서 문학담당층이 크게 확대되어 소설을 비롯한 서사문학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시기이며, 세책점이 성행하고 방각본의 상업적 출판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소설의 상품화와 통속화가 나타나던 때이기도 하다.

임형택, 「서민문화의 대두」, 『한국사 연구입문』, (한국사연구회편, 지식산업사, 198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쟁을 겪은 후의 체험으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고소설에 전쟁 소재가 일반화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 후라고 할 수 있다.

고소설에 나타나는 전쟁 소재는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한 역사군담소설과 허구성이 강조된 창작군담소설에 주로 수용되었다. 역사군담소설은 대체로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반성 및 그로 인해 실추된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³⁾, 이 작품들에서는 역사적인 전쟁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실성이 강조되었다. 물론 전쟁 소재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허구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사군담소설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전란의 패배에서 오는 다양한 인식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창작군담소설은 허구의 전쟁 소재를 주인공의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이나 통과시험의 과정으로서 수용하여 군담 자체의 흥미와 주인공의 영웅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소설군에서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소재가 문학적 흥미의 차원에서 수용되고 있어서 대체로 그 내용이 관습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자세한 전쟁 상황에 대한 묘사나 사건 정황에 대한 세세한 언급보다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과 승리가 더욱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⁴⁾ 그러나 이렇게 고소설의 전쟁 소재가 관습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작품 내에서는 당시의 시대 배경이나 작품의 지향점, 그리고 주된 향유층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은 대체로 외부적인 고난으로서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야기하는

3)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임진록』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임경업전』, 『박씨전』 등이 있다.

4) 고소설 속에 반영된 전쟁에 대한 연구는 그 성과가 그리 많지 않으며 전쟁을 다루는 개별작품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될 뿐이다. 고소설 속의 전쟁 소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들로는 다음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박명순, 「고소설에 나타난 전쟁의 구형 양상」,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1998)

김경남, 「한국 고소설의 전쟁소재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0)

위기 상황으로 기능하여 출세와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영웅의 활약을 선악의 대결로 형상화하여 긴장감을 유발하고 대중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고소설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양상 중의 하나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소설에서의 전쟁 소재는 주로 역사적 사실의 허구화와 작품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고소설, 특히 창작군담소설의 경우에 전쟁 소재는 허구성이 강하며 점차 관습화되고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쟁 소재가 문학에 수용될 경우 반드시 허구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고소설의 전쟁 소재는 주인공의 삶의 과정 중 한 부분을 차지하며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므로 단순한 흥미 요소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전쟁은 여성이 무력하게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므로 전쟁이라는 상황에 의해 형성되고 상상되는 여러 형태의 여성정체성은 주로 전쟁 과정과 그 후의 수동적인 여성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전쟁은 남성적

5) 이러한 경향은 근현대 소설에서 주로 전쟁 소재를 통해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선과 악의 문제, 인간 존엄성과 비인간성의 문제 등을 고발하며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설 중에서도 『이생규장전』이나 『주생전』 등의 작품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남녀의 이별과 고난이 그려지며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공들의 애정을 방해하는 배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최척전』 같은 작품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별과 만남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당시 사람들의 고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으며 『김영철전』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사실주의적인 고소설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런 작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인 힘과 폭력이 극대화된 상황으로 여겨지므로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무력하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즉 여성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전쟁의 고통과 희생을 대변하는 상징으로서의 편향된 여성 형상이 문학 속에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전쟁이라는 상황은 전통적인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의 범주가 해체되고 사회 구조와 가치관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로서, 그동안 남성에게 가려져 있던 여성의 잠재적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임진·병자의 양난 이후에 고소설에는 전쟁 소재의 수용이 일반화되면서 여성의 힘과 능력이 강조되는 여성영웅 형상이 등장하게 된다. 물론 그 이전의 고소설 작품들에서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의 여성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는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소설군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여성영웅 형상은 당시의 실제 현실과 일반적인 윤리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여성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영웅 형상의 등장은 양난 이후에 생겨난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욕구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 작품 중 『박씨전』, 『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립전』의 네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여성영웅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영웅으로서의 여성 형상의 의미와 그 속에 반영된 이상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⁶⁾

6)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박씨전, 『활자본 고전소설 전집』2,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76)
 옥주호연, (경판 29장본) 김동욱 편, 『고소설판각본전집』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홍계월전, 『활자본 고소설전집』16,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방한립전, 『나손본 필자본 고소설자료 총서』 11, (보경문화사, 1991).

1) 여성영웅소설에 수용된 전쟁 소재의 기능과 여성영웅 형상의 양상

전쟁 소재가 수용된 창작군담소설 작품군 중에서 여성영웅 형상이 주로 등장하는 소설군은 여성영웅소설이다. 여성영웅소설은 조선후기에 활발히 향유되었던 소설군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여성주인공이 공적인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활약하는 과정이 주된 내용이다. 여성영웅소설은 이 소설이 향유되었던 유교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불가능했던 여성 인물의 영웅적 활약을 형상화했다는 측면이 흥미를 끌게 되면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그 초기부터 주로 국문소설의 독자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남녀평등 사상이나 여권신장을 반영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여성영웅소설의 발생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주로 두 차례에 걸친 전란 후의 정치·사회·문화적 동요와 인식의 변화를 중요한 배후 요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여성영웅소설은 홍길동전 이후 하나의 유형군을 이루었던 영웅소설과 같이 영웅의 일대기를 근간으로 하는 신화적 서사구조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화적 서사구조는 그 자체가 다양한 소설 유형에 수용되면서 변주되고 있으며, 여성영웅소설의 경우 서사 전개 과정에서 남녀의 이합에 따른 혼사장애구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여성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인식과 가성 내에서 일어나는 남편과 시집 식구와의 갈등 등 여성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영웅소설과는 다른 주제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인정되어 독자적인 유형의 소설군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쟁이 주된 소재로 수용되어, 위난의 시기에 여성의 능력이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나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힘과 능력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 등을 생각하게 해준다.

『박씨전』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추한 용모를 지녔지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이 전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대체로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민족적 자존심의 상처를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

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여성의 힘과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박씨전』은 역사적인 전쟁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전쟁의 치욕과 상처를 문학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 작품에는 이시백과 임경업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함께 박씨라는 허구적인 여성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박씨는 비록 가정 내에서 남편을 돕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작품 속에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문제 해결자로 등장함으로써 전란에서 패배한 남성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면서 여성의 잠재적 능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박씨는 선인(仙人)의 딸로서 추한 외모 때문에 시댁식구의 멸시를 받지만 하룻밤 사이에 시아버지의 조복을 짓고, 삼백 냥으로 산 용마를 삼만 냥에 팔아 가산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곧 닥칠 불운을 예감하여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남편에게 벽옥연적을 주어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다.

박씨의 능력은 특히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박씨는 호국의 귀비가 보낸 여자객을 물리치고 호국의 침입을 미리 예견하여 이시백을 통해 조정에 알리지만 간신의 농간으로 인해 패배를 당하고 만다. 그러나 박씨는 피난하는 부인들을 피화당에 피신시킨 후에 피화당에 침입한 호국 장수 용골대를 죽이고 그의 형인 용울대가 세자와 왕비를 포로로 잡아 회군하는 것을 막아 왕비를 구한 후에 임경업에게로 보내 호국에 대한 치욕을 풀고자 한다.

이처럼 『박씨전』은 박씨라는 허구의 여성 인물을 등장시켜서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여성의 입장에서 부분부분 허구화하여 재구성하고

7) 박씨전은 약 70여종의 필사본이 존재하며 춘향전과 구운몽 다음으로 이본이 많은 작품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고소설로 꼽히는데, 방각본이나 한문본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주로 사대부 가문의 여성 독자에게 읽혀졌던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전란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함께 박씨전의 주인공인 박씨의 특이한 면모와 활약상을 좀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효현, 「박씨전의 문체의 특성과 작품 형성 배경」, 『한글』226호, (한글학회, 1994)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란의 패배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박씨전』은 전란이라는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박씨라는 여성을 내세움으로써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잠재적인 힘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쟁에서의 패배를 자초한 남성 주도의 사회체제가 지닌 무능함과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옥주호연』은 한낱 한시에 태어난 자주, 벽주, 명주 세 자매의 영웅적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서, 자신들에게 여도만을 강조하는 아버지를 피해 집을 떠난 세 자매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벼슬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자매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여공을 폐하고 무예를 익히며 입신양명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인물들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뵈을 길이 없사온지라. 석(昔)에 당태종의 누이 장원공 주로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효칙(效則)하여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대란(大亂)하오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이 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114면)⁸⁾

유자주 자매는 천하가 혼란한 상황이 바로 자신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며 아버지로 대변되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남장을 한 채 집을 떠난다. 이 작품에서 유자주 자매는 당태종의 누이인 장원공주가 평생 무예를 배워 그 이름이 천하에 유전되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꿈이 여도를 행하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8) 정병현·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태학사, 2000)

의지는 새로운 왕조의 건설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란에서 적병을 교란시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능력을 천자로부터 인정받아 벼슬을 얻게 되면서 실현된다. 따라서 이들은 전란을 계기로 하여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를 입증해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여자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다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곧 성역할의 범주는 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규정한 것으로서 여성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설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사회는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려는 여성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자주 자매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사회적 지위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여성들에게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홍계월전』은 여성의 우월성이 특히 강조된 작품으로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성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여성 인물이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 규범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남성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거부도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영웅적 활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홍계월은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를 살아가는 인물로서 배우자인 보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과거에 급제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고 전장에서는 보국을 부하로 부리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그러나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고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된 후에는 보국이 기존 사회의 남녀의 지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보국과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간의 대립은 전란이 발생하게 되어 계월이 다시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자 곧 해소된다. 계월이 전란이라는 위기 상

황에서 천자와 시부모, 그리고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하게 되면서 남녀간의 위계 질서라는 그릇된 명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계월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천자와 시부모의 인정과 지지를 얻고 자신의 공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동등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계월은 전란을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편과의 불평등한 관계도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관림전』은 주인공인 방관주가 스스로 남장을 선택한 후에 학문과 무예를 닦아서 입신양명하며, 자신과 뜻이 맞는 여성과 결연을 맺어 일생 동안 공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독특한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방관주는 어려서부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학문과 무술 연마에 힘쓰며 입신양명을 통한 가문의 영달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

방공 내의 여아의 뜻을 맞추어 소원대로 남복을 지어 입히고 이치 어린 고로 여공을 가 르치지 않고 오직 시서를 가르치니 방소저 나이 어리나 서공이 날로 장진하여 시서 백가 어를 무불통지하여 이두를 모시하니…… 방적수선을 권한 즉 스스로 폐하니 부모 또한 여 아의 재모 범인이 아니라. 또한 슬피 여김을 구태어 권치 않고 여복을 나오지 아니하고 친척으로 하여금 아들이라 하더니…… (211면)⁹⁾

또한 방관주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세상을 두루 여행하며 견문을 쌓음으로써 외부의 자극이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자아를 발전시켜나가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후에는 자신이 여자임을 알아본 영혜빙을 만나 남성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일생을 지기로서 살고자 하는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결연을 맺게 됨으로써, 일생 동안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이 작품에서 방관주는 능력과 덕성

9) 정병헌·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태학사, 2000)

을 갖춘 청렴한 관리이며, 외적의 침입을 막아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인물로 그려짐으로써, 남성적인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여성적 정체성의 틀도 뛰어넘는 이상적인 인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2) 영웅으로서의 여성 형상의 의미

지금까지 전쟁 상황 속에서의 여성영웅 형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소설 속의 여성 형상들이 대체로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성영웅소설 속의 영웅적 여성 형상은 좀더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데올로기 내에서의 여성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에 대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로 남성 작가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지배 이념에 의해 왜곡된 전형적 여성 형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 형상의 발굴과 긍정적인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잘못 읽혀져 온 여성 형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¹⁰⁾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고전 문학 속에 재현된 대부분의 여성 형상이 역사 속에 실재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왜곡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남성과 여성들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근·현대의 문학 작품들과 여성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여성영웅 형상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데, 고소설 속의 여성 형상들이 대체로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재현되고 있는데 반해서 영웅적 여성 유형은 좀더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여성 영웅 형상이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데올로기 내에서의 여성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설에 등장하

10) 팸 모리스,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9), pp. 31~67.

는 특이한 여성 유형인 여성영웅의 형상이 드러내는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해 오늘날에 있어서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형상이 지니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의 형상은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제한적이고 정형화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형상과는 다른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웅적 활약의 과정에서 남장을 한다는 점과 여성으로서 '너무 강하게' 형상화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여성의 남성화나 남성성의 찬양을 위한 또 다른 유형의 '잘못된 재현'으로 간주되어 앞의 시각과는 상반된 시각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에서의 남장 모티프는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하는 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남장을 했을 때와 여자임이 밝혀진 후의 여성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남녀의 성별이 단순한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라는 인식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영웅 형상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시각들을 전제하더라도, 문학이 지닌 상상력의 가치나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제기의 기능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고전소설 속의 여성영웅 형상이 지니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¹¹⁾ 여성영웅 형상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영웅소설들의 주된 향유층이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여성 형상일지라도 그것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재생산해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바라보는 주체의 시각에 따라서도 상반된 해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영웅의 형상은 그 주된 독자층이었던 조선후기 여성독자와의 관련을

11)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정병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방식과 소설 교육적 자질」, 『한국 문학논총』 24집, (한국문화회, 1999. 6.) 참조.

통해 이해해야 그 온전한 면모를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영웅으로서의 여성형상은, 영웅을 주로 육체적인 힘을 통한 정복이나 퇴치 등의 남성 행위적 이미지로 인식하여 남성적 경험 모형으로만 보려고 한 탓에, 잘못되었거나 특이한 여성 재현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너무 강하게 형상화된 여성영웅은 가부장제적 이념의 관습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도리어 여성의 남성화나 남성성의 찬양을 드러낸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영웅의 성별을 남성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영웅은 사고와 행위에서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여 일상의 속박으로부터 새로운 모험과 지평을 제시하는 인물이며 변화와 개조를 요구하는 사회적 심리로부터 태어난다고 보았을 때, 영웅은 성별 조건을 넘어서는 양성적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또한 군사적 용맹을 이룰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강인함은 남성성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으며 여성성의 영역에도 포함될 수 있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성, 남성성의 개념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후천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영웅이라는 명칭도 남녀 모두에게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웅으로 형상화된 여성이나 공적영역에서 활약하는 여성인물을 모두 남성화된 여성이라거나 남성성에 경도된 인물이라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경우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제약을 피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남장을 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지 남성이 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영웅소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에 의해 창작되고 수용되었는가 하는 문제¹³⁾를 기본적

12) 정금철, 「영웅의 자아실현과 여성 영웅주의에 대하여 - 영웅담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서강어문』 2집, 1982)

13) 조선후기의 소설창작과 수용에 있어서 여성독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는 바이다. 특히 조동일은 당시의 소설이 새롭게 등장한 비전통 장르로서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인 전제로 하여,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이 구성하고 이야기 하던 서사들은 주로 성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사였음을 고려하여, 여성 영웅소설이 여성의 영웅화라는 (현실속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즉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는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기존의 제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항하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즉 여성의 제한된 삶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영웅들의 영웅적 행위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영웅 형상에 반영된 이상과 현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며 문학 속의 인물은 현실의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형상화된다. 문학에 형상화된 세계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소망과 이상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결핍을 메우고 보충한다. 여성영웅 형상도 이처럼 소설 향유자들

나라의 고전소설이 대부분 작자미상인 것은 여성작가와 독자가 많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보았는데, 작가보다는 작품을 중시하는 여성독자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여성작자층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홍희복의 『제일기언서』에 “문장하고 일없는 선비와 재주있는 여자”가 주로 소설을 지어냈다고 하는 언급이나 조선후기의 몇몇 장편가문소설이 사대부가의 부녀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연구 결과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동일, 『소설의 사회적 비교론』2, (지식산업사, 2001), pp. 127~155 참조.

14) 정병헌·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p.269.

의 경험과 상상으로 이루어진 인물 형상이다. 여성영웅 형상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심했던 시기에 여성이 남장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여 입신양명한다는 설정으로 인해서 극히 비현실적인 인물 형상으로 비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은 사회가 규정한 여성의 영역이나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내며 그러한 의식이 여성의 영웅적 활약이라는 방식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영웅 형상은 여성들 스스로의 의식이나 여성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식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토대로 하여 형상화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강하고 당당한 여성영웅의 형상은 설사 그것이 매우 비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여성들에게 개성과 독자성을 지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매우 의미 있게 수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고소설에 수용된 전쟁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살핀 후에 여성영웅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여성영웅 형상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삶의 양식과 대응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여성영웅의 형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성 인물의 영웅적 활약은 전쟁이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성의 능력이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해주며, 여성의 힘과 능력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킨다. 특히 여성영웅 형상은 근대 이전에 이루어진 여성성에 대한 인식의 또 다른 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영역이나 능력 및 역할을 출산이나 육아의 측면으로만 제한하는 기존 사회의 성역할 범주는 여성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여성의 삶의 폭을 좁혀 왔다. 특히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외부 상황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여성 정체성의 문제는 문학이나 실제 삶에서나 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한된 삶의 영역과 방식에서 탈피하여 여성에게도 선택 가능한 여러 형태의 삶의 양식과 운명이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여 여성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필자 : 숙명여대 박사과정수료

〈참고문헌〉

- 박씨전, 『활자본 고전소설 전집』2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76)
- 옥주호연(경판 29장본), 김동욱 편, 『고소설판각본전집』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 홍계월전, 『활자본 고소설전집』16,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 방한립전,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 총서』11, (보경문화사, 1991)
- 김경남, 「한국 고소설의 전쟁소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0)
- 박명순, 「고소설에 나타난 전쟁의 구현 양상」,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1998)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출판부, 1984)
- 임형택, 「서민문화의 대두」, 『한국사 연구 입문』(한국사 연구회 편, 지식산업사, 1981)
- 장효현, 「박씨전의 문체의 특성과 작품 형성 배경」, 『한글』 226호, (한글학회, 1994)
- 정금철, 「영웅의 자아실현과 여성 영웅주의에 대하여—영웅담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서강어문』 2집, 1982)
- 정병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방식과 소설 교육적 자질」, 『한국문학논총』 24집, (한국문학회, 1999, 6)
- 정병헌·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고론』2, (지식산업사, 2001)
- 팸 모리스,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9)

Abstract

War motif and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hero in Kososeol
-centering on the female heroic novel

Lee, Yu-Kyung

This thesis is about the function of war motif in Kososeol, and the aspects and meaning of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hero. In the late period of Chosun-Dynast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e Manchu Invasion of 1636) war motif popularized in Kososeol. In Kososeol, war motif shows a tendency to Formalize, but i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the theme in various ways. In female heroic novel, war motif function as an opportunity to advance to public area when a heroin begin to go out into the world.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hero is an extraordinary image of woman in korean narrative tradition. A heroine in the female heroic novel, disguise as a man, conduct war, and occupy a high social position. Sometimes, the image of female hero regarded as very unreal, fantastic image for it's powerful, heroic imagery. But physical and spiritual power is the quality belong to male and female. As a matter of fact, women are and have been heroic, but the androcentric culture has often been overlooking female heroism. Therefore the image of female hero suggest many things about femininity. This kind of female hero shows the hidden abilities of woman and social consciousness about femininity. And the image

of female hero reveals self-consciousness of woman and criticize the androcentric society. Therefore the image of female hero reflect the ideal and the real of woman simultaneously. Especially, the aspects of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hero shows pre-modern conception of female identity.

key word : Kososeol, war motif, female heroic novel, the image of female hero, the ideal and the real of woman, pre-modern conception of female identity.

▶ 위 논문은 8월 30일 투고 완료, 9월 30일 심사 완료, 11월 15일 게재 확정